

## 대안교육 20년, 불교는 여전히 불모지

한국의 대안 교육의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성년이 된 것이다. 경쟁위주의 공교육에서 환멸을 느낀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찾고 있고, 최근에는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을 특성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대안 교육의 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개신교, 카톨릭, 원불교 등 종교들도 적극적으로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대안 교육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안학교는 제도적 규제를 받고 학력을 인정하는 인가 학교와 민간 단체가 자유롭게 운영하지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가 학교로 나뉜다.

현재 대안학교 및 대안 교육 특성화 중등학교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총 54곳. 본지 조사 결과 이중 불교 대안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 인가 대안학교는 19곳. 이중 기독교는 7곳, 원불교는 1곳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11곳인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기독교 3곳, 원불교 4곳이었으며,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총 24곳 중 기독교는 9곳, 원불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종교별로 집계하면 기독교가 19곳, 원불교가 10곳에 이르고 있으며, 수치로 보면 기독교가 전체의 35.1%, 원불교가 18.5%에 달한다.

학교 외 민간단체의 대안학교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00여 곳에 이르는 민간단체 대안학교 중 기독교 사상을 표방한 학교는 약 133곳에 이르지만, 불교계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실상사 작은학교와 골굴사 선무도화랑학교, 해인스쿨 등 3곳뿐이다.

장기 위탁형 대안학교 경우 삼전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양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아란야 대안학교'와 '나란타 대안학교', 함안 미륵사 주지 일광 스님이 교장으로 있는 경남 보건고등학교 등 3곳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인드라망 대안대학'이 준비되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불교계의 대안교육 분야의 참여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사찰이 가지는 자연 환경, 불교 철학과 사상은 아이들을 전인적 인간으로 키워내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욱자 동국대 교수는 '불교의 대안교육'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불교의 대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교육 환경은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돼 있어왔다. 이를 넘어서는 가치지향적인 인격 교육이 필요하다"며 "종교성은 인격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 대안학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01년부터 실상사 작은학교를 운영해 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운영할 인재가 없고, 스님들이나 재가자들의 관심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불교는 대안 교육을 위한 철학적, 환경적 인프라는 충분하다. 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없고, 관심도 없다"면서 "오래 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1교구 1대안학교'를 제안했지

인가 특성화학교 불교 5곳

기독교 19곳, 원불교 10곳

인드라망 실상사 작은학교 등

미인가 불교 대안학교 3곳뿐

위탁형도 3곳... 차이 '현격'

환경·철학 등 인프라 좋으나

인재·관심없는 총체적 난국

만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실상사 작은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부, 목사님, 이웃종교 학부모다. 불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변화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대안교육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중앙승가대 교수 역시 "중앙승가대 내에서도 안암동 부지를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이 논의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불교적 철학이 담긴 교육 과정을 개발해 대안학교를 운영하면 차세대 불교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교구본사들이 대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인터뷰 4면



10월 24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진행된 '밀양 송전탑 대국민 호소 릴레이 765배'에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동참해 정부와 한전, 시민들에게 송전탑 건설을 막아달라며 호소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 불교, 밀양의 입이 되고 손이 되다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지난 10월 24일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조계종 노동위)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송전탑 반대 대국민호소 릴레이 765배에 동참해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부위원장 혜조 스님, 노동위원 도철 스님, 조계사 신도사 업무국장 법공 스님 등 3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20배씩 총 765배를 했다. 765배는 건설중인 송전탑 전압 규모 765KV를 상징한다.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건강, 자연, 공동체 파괴, 사유 재산 점용 등 76만 5천 볼트의 고압선이 지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 변화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대안교육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964호 INDEX

시방세계 5 월정사 제10회 오대산 축전 성료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대 중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역 내에서 전기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전원체계 수립 △신고리3호기 폐쇄 △핵발전소 비중 낮추는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합의의 기구

조계종 노동위 765배 동참

환경위 공사중지 성명 발표

시민단체는 농활 통한 연대

마련 등을 요구하며 1배씩 절했다. 이와 함께 10월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이하 조계종 환경위)가 송전탑 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대도시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이 일

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은 정의롭지 않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송전탑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를 가파르게 늘리는 현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에 에너지 효율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밀양 주민들을 위한 불교계의 실질적 배려도 돋보인다. 불교시 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살자'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밀양으로 농활을 떠나는 것이다. 서울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생업을 놓은 주민들의 농사 일손을 돕기 위해서다.

주최측은 "밀양 주민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농활을 기획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는 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 된다. (02) 722-5010 배현진 기자

## “대흥사 삼세불상 조선 후기 대표작”

한국미술사학 ‘불상 조성기’ 발견...삼세불로는 最古

해남 대흥사 삼세불상이 조선 후기 미술의 시작점을 알리는 대표적 인 불상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삼세불상의 복장에서 당대 불교의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적 또한 대량 발견됐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0월 15일 “삼세불상 개금불사 과정에서 불상 복장에서 조성기와 복장품 등을 찾았다. 불상조성기에서 불상의 제작시기가 광해군 4년(1612년)으로 밝혀졌으며 국보급 가치를 지닌 문화재 수백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흥사 삼세불상(三佛佛像,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은 17세기 대표적 불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정확한 연대를 밝히는 자료가 없었다. 학계에서는 광해군 대인 1609년을 조선 후기 미술이 시작된 해로 보고 있다. 그동안 1600년대 초의 문화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급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견된 불상 조성기에는 '시유명황만력사십년세차임자팔萬曆四十年歲次壬子八月十六日頭輪山大菴寺' 법당당주석가약사미



해남 대흥사 삼세불상

타삼존소성복장기'라는 내력이 적혀 있다.

문명대 교수는 “정유재란(1597) 당시 왜적들에 의해 대흥사가 소실됐는데 그 후 불교계가 힘을 합쳐 사찰을 중창했다. 10여년 동안 법당과 부속시설을 복구했으나 본존 불상은 수년째 주춧돌만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여러 사람들의 시주로 인해 1612년 8월 16일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삼세불상이 17세기 조각승으로 이름을 떨친 태전 선사의 작품인 점도 불상이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계 문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미술사연구소는 11월 9일 이번 대흥사 삼세불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논란된 불교방송 이사 정수 변경 이월

제84차 이사회서 결정... 신임 이사 미산·능원 스님

불교방송 이사회가 사장복무규정을 폐지하고 논란이 됐던 이사 정수 변경 개정안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했다.

불교방송은 10월 25일 서울마포 가든호텔에서 제84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종하 스님을 비롯해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는 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 된다. (02) 722-5010 배현진 기자

관 개정안과 임원규정, 지방사 설립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다음 이사회로 이월됐다. 이 중 정관 개정안은 △이사 정수 21인 이하로 조정 △조계종 총무원장과 총회회장의 당연직 이사 조항 폐지 등 3건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조계종 이사회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조계종 측의 비난이 이어져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이사로 중앙승가대 총장대행 미산 스님과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을 새 이사로 선정했다. 미산 스님은 중앙승가대 전 총장 태원 스님의 후임으로 학교법인 승가학원에 서 추천했으며 능원 스님은 전 이사장 영담 스님의 후임으로 쌍계사에서 추천했다.

불교방송 제85차 이사회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그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쳐이시네  
2.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